1. 경관고고학적 관점에서 본 대가야 고분군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활용

가. 김 종 일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나. I. 머리말¹⁾

1990년대 이후 한국고고학은 자료의 질과 양의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하는 다 수의 대규모 무덤 유적과 취락 유적을 비롯하여 저습지 유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생활 유적과 생산 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고령과 경주 지역을 비롯한 삼국 및 가야 지역의 고대고분 군은 물론이고 청동기 시대로만 한정하더라도 진주 평거동 유적을 포함한 진주 남강 유역의 여 러 유적들과 대구 동천동 유적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주거지와 무덤, 수전 혹은 밭 과 같은 경작 유적, 그리고 공방과 같은 생산 유적이 함께 발견되는 복합 유적이 조사되어 당시 의 일상 생활과 죽음,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포함한 당시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종합적으로 이 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연구 시각과 방법론 또한 고고학 연구에 도입되어 적용된 바 있다. 예를 들 면 경관고고학의 측면에서 유적 입지와 이를 둘러 싼 경관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대 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고고학에서 유적 경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시작단계에 머 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고고학 연구에서 경관 고고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 식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관고고학의 주요 이론과 방법론이 실제 한국 고 고학 연구와 자료의 해석에 적용되어 그러한 자료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고고학적 이해에 어떻 게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이는 기존의 기본적 인 고고학 방법론인 형식 분류나 편년, 그리고 과정 고고학에서 강조하는 과학적 연구 절차나 자 연과학적 분석 등이 지역이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직접적인 고려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방법론인 반면에 경관고고학은 해당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는, 즉 자연 경 관과 문화 경관, 그리고 역사 경관과 상징 경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다시 말해서 경관고고학의 주요 원칙들이 해당 지역의 고고 역 사적 배경과 경관 상의 특징이 깊이 있게 고려된 바탕 위에 체계적인 고민과 함께 섬세하게 적 용되어 새로운 해석 과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관고고학이 역사학의 한 분야로 경관사 (Landscape history)가 등장하고 고고학에서 후기 과정고고학 (Post processual archaeology)이 등장하여 발전하는 영국의 특정한 학문적 전통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원과 언덕이 적절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어우러진 웨섹스 지역의 자연 경관과 이러한 자연경관 안에 스톤헨지와 같은 특정한 형태의 거석기념물이 위치

¹⁾ 이 발표는 다음과 같은 필자의 글들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김종일, 2006.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가능성」 『한국고고학보』58. 김종일, 2009. 「삶과 죽음의 토포필리아」 『선사농경연구의 새로운 동향』 안승모 이준정 편, 사회평론. 김종일, 2011. 「경관의 고고학적 이해」 『한국 선사시대 사회와 문화의 이해』. 중앙문화재연구 김종일, 2011. 원 편, 서경문화사.

하는 독특한 문화 경관 혹은 상징 경관이 형성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취락 유적에 대해 전면 제토에 의한 발굴 방법이 채택되면서 전체 유적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었으며, 환호나 농경 및 생산 유구를 포함하는 대규모 취락 유적으로 비롯하여 묘역식 지석묘를 포함한 대규모 무덤 혹은 제의 유적, 그리고 고령과 경주와 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 고분군 혹은 그러한 고분군을 포함하는 왕성 혹은 도성의 형성 (그리고 그러한 왕성 혹은 도성 경관의 형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고고학 자료들은 경관고고학의 본격적 연구를 통해 그의미가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되고 기술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경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 고고학 연구의 핵심적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신석기 시대 초기 농경의 도입과 생계 경제의 변화, 청동기 시대 거석 무덤의 등장에 대한 검토, 청동기 시대 취락 구조의 분석, 환호 취락의 등장에 대한 검토, 고분 축조를 통한 권력의 발생과 행사, 도성의 등장과 도성 경관의 형성, 그리고 이러한 고고학 유적을 매개로 형성되는 개인 혹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경계 등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해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이미 소개된 바 있던 경관고고학의 주요 원칙들을 반복하여 소개하는 대신 이를 최대한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한국 고고학의 주요 유적들 가운데 각 시대를 대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묘역식 지석묘, 고령과 경주 고분군, 그리고 유럽의 사례 가운데 스톤헨지의 사례를 들어 경관 상 특징과 의미, 그리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 Ⅱ. 경관고고학의 주요 원칙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고고학에서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과 함께 경관과 관련된 고고학 연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경관 고고학 (Landscape Archaeology)이 고고학의 주요 연구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원칙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필자의 여러 글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의들 가운데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1. 경관과 의미화

경관은 단순한 '공간' (space)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인간의 다양한 행위에 의해 역사적으로 의미 있게 형성된 일종의 '장소' (space)이며 그러한 장소는 여러 세대에 걸친 인간의 행위가 다양한 흔적 (고고학 유적 혹은 유물)의 형태로써 누층적으로 남겨진 일종의 양피지 같은 존재이다. 산과 강, 대지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은 그 경관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미 의미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설사 의미화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자연경관에 취락이나 경작지, 혹은 무덤 같은 인공 구조물이 위치하여 문화 경관이 형성되는 경우에 그러한 자연 경관에 대한 의미화 작업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자연 (혹은 자연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문화의 영역으로 편입된다. 한편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문화 (혹은 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가 자연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자연의 문화화 그리고 문화의 자연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의미화를 통한 경관의 형성과 해석 과정은 여기에 거주하거나 그러한 경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그 경관의 의미가 끊임없이 기억되거나 이미지화 되면서 동시에 내재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2) 2. 경관과 해석의 다층성

경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거나 해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관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은 서로 경쟁, 충돌하거나 타협될 수 있다. 경관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경험했을 사람들은 당시 사회내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 그리고 그들과 경관과의 관계에 따라 특정한 경관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랜 동안 지리산 근처에 살면서 화전이나 소규모 농토를 일구며 살거나 약초 등을 캐면서 생업을 유지해왔던 원주민들과 소위 '힐링'을 위해 지리산 둘레길을 찾은타지인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자연유산의 보존과관광 및 레저 산업의 발전이라는 정반대의 정책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공무원에이르기까지 동일한 경관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바라보거나 의미화 될 수 있다. 이와는 다른관점에서 경관을 자연경관 (Physical Landscape)과 (의미 있게) 구성된 경관 (Constructed Landscape), 개념화된 경관 (Conceptualised Landscape), 이상적 경관 (Ideational Landscape), 그리고 이들을 포괄하는 실제적 경관(Real Landscape) 등으로 구분하며 이러한경관들이 한 사회에서 동시에 존재하면서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인간이 경험하고 관계하는 실재적 공간은 다층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적어도 근대 세계의

형성 이후에 우리가 흔히 전제하고 있는 단순한 배경으로써, 수동적인 동시에 동질적이며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경제적 관점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거나 단순히 감상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3) 3. 경관과 시간성, 그리고 장소성

근대 세계의 형성 이후, 똑 같은 길이로 분절할 수 있고 더하거나 뺄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일차원 상의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자연과학적 혹은 수학적 시간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관은 우리의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간'들, 즉 다양한 시간 단위와 시간 구조, 그리고 시간 조직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따라서 근대 세계 이전 시기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회들은 각기 다른 시간관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할 수 있다. 공간 또는 경관과 마찬가지로 근대 시기 이전의 시간을 다룰 때 근대적 시간관에서 벗어나 절기의 구분과 구분된 절기에 따흔 시간표의 체계화, 그러한 절기의 반복과 순환 등을 포함하여 해당 사회의 시간이 어떻게 분절되고 구조화 되는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물질문화를 매개로 하여 시간이 구조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시간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식 세계와 실제 생활세계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지금바로 이 순간 느끼는 대상에 대한 근원 인상과 그러한 근원 인상이 시간이 흐름 따라 차츰 뒤로밀려가면서 뒤에 오는 근원 인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파지, 그리고 근원 인상을 감각할때 앞으로 다가올 것이 영향을 끼치는 예지 등의 관계에 의해 인식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러한 파지, 근원 인상, 그리고 예지가 어떻게 경관 상에서 구조화되어 나타나는지, 즉 경관 상에서 시간과 장소가 어떻게 서로를 구조화 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한 데 예를 들면 하나의 경관 안에서 순서 지어 축조된 무덤들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과 그러한 시간들이 어떻게 구조화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4. 경관과 권력

경관은 다양한 형태의 권력, 또는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장이기도 하다. 특정한 형태의 경관 형성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상징적 권력의 존재를 추정하거나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도 동시에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고학 연구에서는 권력의 존재와 크기가 단순히 유적 유물의질과 양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파악하거나 권력의 존재를 위계화의 문제로 한정하여 이해한다는점이며 따라서 일부 특징적인 고고학적 증거를 권력의 존재 여부와 크기, 그리고 위계화를 증명해주는 일종의 반영물로만 본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권력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관계없이 그 사람으로 하여 금 무언가를 강제로 하게 하는 것이라는 베버의 개념 (권력의 일차원적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인접학문에서 제시된 바 있는 좀더 확대된 형태의 권력 개념, 즉 누군가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권위나 지위에 복종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하거나 (이차원적 개념). 다른 사람 의 생각과 의도를 자신의 그것으로 일체화하거나 내재화하여 마치 자신이 자신의 이익이나 의도 에 따라 행위 (삼차원적 권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권력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둘째, 권력을 단순히 위계화와 관련 지어 이해할 뿐 실제로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작 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권력과 위계화가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거나 직접적인 양(positive)의 상관관계를 잦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과 위계화는 권력관계가 형성된 이후 그 권력관계가 정당화되거나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즉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위계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후에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만약 위계화만을 가지고 그 당시 사회의 권력의 발생 여부를 살펴볼 경우, 위계화 이전의 사회에 존재했을 권력의 행사 방식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회에서 해당 사회의 권력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서는 다양한 권력관계의 형성과 권력의 행사를 보여줄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경관의 형성과 해석이 바로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의 좋은 예일 수 있 다.

특정한 형태의 경관을 형성하거나 이미 형성된 경관을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게 하며 이를 통해 권력의 존재를 보여주거나 과시하거나 권력관계를 마치 자연적인 것처럼 정당화하는 과정을살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한 형태의 경관을 가시적으로보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기도 하고 경관을 경험하는 몸의움직임이나 시선을 통제하여 원하는 방식대로 경관을 해석하거나 체험하게 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움직임과 동선, 그리고 시선의 통제는 통제를 받는 사람들의 경관에대한 경험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따라서 경관을 느끼거나 해석하는 방식도 제한했을 것이다. 이렇게 움직임과 시선의 통제를 통해 의도한 방식대로 경관을 읽게 하는 것을 통해 권력은행사된다.

5) 5. 경관과 이미지

경관의 이해와 해석은 기억에 더하여 감각과 느낌,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 형성되며 그러한 기억

과 느낌은 총체적으로 이미지화되어 내재화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가시적 경관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체험된 경관이 기억 속에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경관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하나의 고정된 관점에서 경관을 시각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경관 안에서 움직이면서, 그리고 시각 뿐만아니라 후각이나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경우, 경관은 단지 감상과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관계맺음을 통해 체험 되며 원경과 근경 및 인식 대상과 배경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여, 앞과 뒤 그리고 안과 밖의 구조주의적 구분에 따른 의미화와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들과 그 이미지들이 실제로 몸의 움직임과 함께 변화해가는, 즉 역동적이고 통합적으로 경관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사진이나 복사기와 같이 경관의 세세한 부분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재생하는 것이아니라 감각적 경험과 그것과 관련된 여러 상징과 의미의 연관을 특정한 이미지와 결합하여 기억하며 이러한 기억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경험과 담론의 형성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6) 6. 경관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

특정한 형태의 경관은 그러한 경관을 인식하거나 경험했을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은 과거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에 대한 기억 가운데 일부로 구성된 일종의 이야기 (story) 이며 이러한 정체성은 한번 형성되면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 안에서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며 타협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한 경험과 기억이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채택되어 재해석되는 동시에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이용된다. 경관 또한 물질문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억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하나이다. 즉 과거의 경험은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경관을 통해서도 기억되며 재해석될 수 있으며또한 그러한 재해석 과정에서 개인 주체 혹은 공동체가 미래로 자신을 투사할 수 있는 매개물이된다는 점이다. 개인 주체들은 특정한 경관을 사회화하거나 혹은 상징화하면서 또는 이미 사회화되고 상징화된 특정한 경관을 경험하거나 그 경관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재해석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관은 그것을 경험하는 개인들에게 시간과 시간성 (Temporality)을 느끼게 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자신을 투사하게 한다. 몸의 움직임의 순서를 통해 느끼게되는 시간적 순서와 먼 과거로 대표되는 경관의 영속성은 그것을 경험하는 개인들이 행위주체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공동체의 경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경관에 대해 같거나 혹은 서로 유사한 해석과 이미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고유의 정체성을 갖게 되기도 한다.

라. Ⅲ. 한국 선사 및 고대 시기 경관 형성의 특장 - 사례 연구 -

한국 선사 시대 및 고대 시대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유적들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경관을 형성해 나갔다. 따라서 그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고 일 반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적용하는 대신 일차적으로 그 지역의 구체적인 지형적 특징과 고고역 사적 배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토대 위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경관고고학의 주요 원칙들을 염두에 두고 경관 형성의 구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 역시 한국 선사 및 고대 시기 경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고고학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왔던 유적들 가운데 경관 고고학의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묘역식 지석묘와 고령 및 경주의 고대 고분, 그리고 영국의 스톤헨지 사례를 중심으로 경관 형성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 묘역식 지역묘의 경관고고학적 의미

최근에 진행된 한국 청동기 시대 묘제의 연구에서 가장 주목한 연구성과를 예로 든다면 묘역식 지석묘에 관한 일련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창원 덕천리 유적과 진안 여의곡 유적을 필두로 현 재까지 대략 30개소 이상의 지석묘 유적에서 소위 묘역 시설 혹은 제단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묘 역식 지석묘의 외형과 내부구조에 대한 형식 분류 외에 입지의 특징과 (화전과 전작을 중심으로 한) 생계경제 방식과의 관계, 그리고 위계화를 비롯한 사회 계층화와 축조와 제의를 통한 묘역식 지석묘의 역할 등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묘역식 지석묘의 등장을 거의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전업적 농경 방식인 수도작 대신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기 쉬운 화전과 전작의 생계 경제 방식과 관련 지어 이해하거나 공동 조상의 무덤을 축조하거나 제의를 행하는 공동체의 등장과 정체성의 형성, 그리고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특정 세대공동체나 인근 지역의 여러 공동체의 수장층들이 그들만의 무덤군을 축조한 것으로 보는 안재호 등의 가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노동력의 동원 가능성 및 생계경제방식과 무덤의 형태와 역할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해서는 관련 고고학 자료에 대한 섬세한 고찰과 민족지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거석 무덤을 포함한 거석 기념물이 등장하는 유럽 신석기중기 시대의 경우, 농경²⁾이 중부유럽에서 서유럽이나 북유럽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토지와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따라서 부계 조상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혈연 집단이 자신들의 토지 혹은 자원 이용권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거석 무덤을 축조한다는 가설을 염두에 둔다면 어느 정도 타당한 추론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즉 자신들의 조상들이 묻힌 거석 무덤을 통해 먼과거로부터 자신들이 해당 지역의 토지 및 자원 이용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권리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가설이 신석기 초기 (LBK)의 장방형 주거지와 정착 농경 Vs. 신석기 중기 (TRB)의 거석 기념물과 이동 경제 (목축 위주)의 도식적인 이분법적 구분의 전제 아래 성립했다는 한계를 가지

²⁾ 여기에서 농경은 반드시 정착 농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 수렵채집 방식을 이동 사회로, 그리고 농경 방식을 정착 사회로 구분하여 보거나 농경 방식 안에서도 이동 농경과 정착 농경을 단절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실제 민족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이분법적 구분으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이동 혹은 정착방식이 수렵 채집 혹은 농경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초기의 정착 농경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이동이 어느 정도 필요하면서도 가능했던 이동 사회였고 LBK 사회의 대형의 장방형 주거지가 그 자체로 기념물성 (monumentality)을 띠고 있었다. 목축 사회 (pastoral society)라 하더라도 목초지를 따라 계절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목 사회 (nomadic society)와는 다른 일정 정도의 정착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사회였다는 점도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창원 덕천리나 마산 진동, 사천 이금동 유적 등 묘역식 지석묘의 형식과 축조 기법 및 순서 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 어느 정도 해명이 되었다. 이와 아울러 이 무덤 군을 거점 취락을 중심으로 연합된 지역 공동체의 수장묘로 보거나 공동 선조의 무덤들로써 공동의 사상적 통합을 위해 축조되었을 것이라는 가설 역시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가설들이 좀더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묘역식 지석묘의 축조를 통해 공동(체)의 '사상적 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시도되고 실천되는 지에 대해 보다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묘역식 지석묘에서 관찰되거나 이미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몇 가지 사실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처럼 한 무덤군에 서 가장 규모가 큰 대형의 무덤이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거창 산포 유적에서 가장 크기가 큰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4호묘가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 되고 있으며 사천 이금동 유적에서도 대형묘인 A1과 C5 무덤이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진안 여의곡에서도 이 무덤군에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3호묘 역시 가장 이 른 시기에 속한다. 창원 덕천리 유적에서도 제단과 제단 안에 위치한 가장 규모가 큰 1호묘와 제 단 부근에 위치한 다른 무덤과의 축조 시기의 차이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발 굴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12호 무덤이 1호 무덤과 제단이 축조된 이후에 축조되었다는 점 과 분포의 특징상 제단 부근에 있는 무덤들이 제단의 위치를 의식하면서 축조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1호묘와 1호묘들 둘러 싼 제단이 다른 른 무덤들의 일부보다는 이른 시기에 축 조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적어도 일부 묘역식 지석묘에서 는 가장 대형의 무덤이 가장 이른 시기에 축조되고 이후 시기에 여타 다른 소형의 무덤들이 축 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부 예외에도 불구하고 무덤들 사이에 부장품의 차이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사천 이금동 유적에서도 부장품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산포 유적에서도 일부 무덤에서 석검과 석촉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33기의 무덤 가운데 부장품의 양과 질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창원 덕천리에서도 1호묘에서 석촉과 관옥이 다수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무덤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의미 있는 차이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세번 째, 오히려 이 당시 가장 중 요한 위세품이라고 할 수 있는 청동 단검이 이금동 유적의 경우, 소형 석곽에서 그리고 덕천리의 경우, 역시 소형인 16호 무덤에서 출토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묘역식 지석묘의 축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로서 소위 '전통'과 경관의 형성이라는 관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각 씨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체크 무늬의 전통의상이나 영국의 왕실 퍼레이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위 전통 (혹은 전통적인 것)은 그 역사가 길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의 창작물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통이 만들어 지면 그 전통은 먼

과거로부터 내려 온 것으로 여겨지게 되며 영속화되고 그리고 결코 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의 형성에는 권력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과 의도 그리고 기제가 작용하게 되는데 에이전시 이론의 사회구조 (혹은 규범) 혹은 아비투스 (그리고 더 나아가 관습)와는 일부 유사하지만 보다 뚜렷이 물질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적 변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본다면 묘역식 지석묘의 축조 과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성장해가고 있던 특정한 공동체 (예를 들면 지역 집단이나 친족 공동체)는 그 지역의 여러 경쟁적 집단들 사이에서 혹은 보다 넓은 범위의 친족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토지혹은 자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이를 정당화하며 그 지역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자신들의 공동의 조상의 묘를 축조하게 된다. 그 이후 후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지위를 거대 묘역식 지석묘로 상징되는 먼 과거를 통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전통'을 통해 영속화하면서 동시에 합법화한다. 이러한 먼 과거와 전통은 이후 지속적인 지석묘의 축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재기억되고 재현 되었을 것이다.

묘역식 지석묘의 축조 과정은 축조에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재확인 하는 작업이었으며 이후에 있었을 지석묘 축조 과정 역시 묘역식 지석묘 (그리고 피장자)와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표현하되 그것은 묘역식 지석묘가 상징하고 있는 먼 과거와 전통의 규범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즉 묘역식 지석묘를 축조했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지위를 먼 과거로 상징되는 공동의 조상에 근거해서 표현하되 자신들의 무덤의 크기와 규모는 조상의 묘의 그것을 현저하게 능가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전통 안에서 합의되거나 암묵적으로 전제되는 제약 아래에서 동검과 같은 위신재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였을 것이다. 공동의 조상의 만약 묘역식 지석묘와 이를 둘러싼 제단에서 제의가 행해졌다면 이러한 먼 과거와 전통은 해당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주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재확인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한편 영속화된 먼 과거와 전통은 묘역식 지석묘와 여타 지석묘의 축조와 이러한 축조 과정을 통해 특정한 형태의 경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 경관은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 그리고 주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인 무덤의 축조나 제의 과정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경험된다. 이러한 경관은 묘역식 지석묘와 이후의 지석묘 축조에 의해 형성된 먼 과거의 기억과 전통을 이미지화하며 그 경관 안에서 개인들의 움직임과 동선을 제약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그러한 먼 과거와 경관을 해석하게 하며 일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시간 (리듬과 템포 그리고 영속화된 먼 과거)의 흐름을 체험하게 한다.

2) 2. 고령 대가야 고분군과 경주 서악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은 주로 5세기에서 6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수 백여 기 이상의 고분들이 주산의 능선과 그 아래 기슭의 경사면에 분포하는 대가야의 왕 및 귀족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이고분군은 여러 측면에서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첫째, 고분의 규모와 부장품의 측면에서 경주 시내 중심지의 훼부 혹은 사훼부의 무덤으로 알려진 평지 고분군)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대형, 중형, 소형의 고분들이 다수 밀집해 있으며, 둘째, 경주의 고분군이 평지에 입지

해 있는 반면 지산동 고분군은 주산의 능선을 포함한 산지에, 특히 대형고분에 속하는 44, 45, 47호 고분들이 산의 정상부 혹은 그 주위에 속하는 장소에 입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산의 정상부 혹은 그 주위 지역에 고분을 축조하여 무덤의 크기와 입지를 자연스럽게 과장하였고 따라서 왕의 권위를 더 크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며이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셋째, 지산동 44호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순장의 예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가야의 순장에 대해서는 이미여러 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되 다만 경관과장소성, 기억, 권력, 그리고 이미지와 관련하여 뒤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넷째, 금동관을 비롯한 철제 무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대가야 토기들이 출토되어 이후 대가야 영역의 확산 과정을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장들 가운데 경관고고학적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과정고고학의 무덤 연구(특히 Saxe/Goldstein 가설 8)에서 논의된 바 있듯이 대가야의 왕 혹은 최상층 세력은 무덤 구역을 주산의 정상부 혹은 능선 및 그 주위에 마련함으로서 자신들 (혹은 자신들의 조상)을 다른 귀족 세력으로부터 확실히 구분하고자 시도하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입지를 선택함으로써 무덤의 크기와 위세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우선 대형의 고분들이 능선을 따라 거의 일렬로 분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포는 뒤에서 언급할 서악동 고분군이나 웨섹스 고분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러한 고분들에 묻힌 주인공들과 이 무덤들을 축조한 사람들의 계승 의식, 즉 특정한 장소의 선택과 선형 분포의 무덤 입지 혹은 묘역의 구축을 통해 밖으로는 다른 이들로부터 그들 자신을 구분하고 안으로는 일종의 그들 자신의 공동체 혹은 계승 의식을 확인해 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덤들의 선형 분포는 적어도 그 것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무덤을 축조하는 사람들에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 의식을 확인케 하고 이를 통해 계승 의식 및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며 이를 내재화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무덤의 입지를 통해 무덤의 크기와 위세를 과장하는 것에 더해 이러한 무덤 축조가 가져올 수 있는 권력 (혹은 권력관계)를 자연 경관 속에 덧대어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권력의 근원을 자연화하고 또한 자연경관을 통해 정당화하며 특히 시간이 흘러가며 그러한 경관이 영속화되고 먼 과거로부터 전해내려 온 것으로 인식될 경우, 그 권력은 매우 오래된 과거로 부터 그리고 영속화되어 표현될 것이다. 한편 무덤의 축조, 특히 44호와 같은 순장묘를 축조하는 경우, 이러한 무덤축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무덤의 주인공 (혹은 무덤의 축조를 주도하는 사람)과관계에 따라,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경관을 느끼거나 인식하며 기억했을 것이다. 누구에는 자신의 조상,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상과 권력관계를 잘 보여 줄 수 있는 장소이며 또한 그럴게 기억되었을 것이며 순장된 사람들의 관련 인물들은 슬픔과 상실의 장소로 그 무덤 혹은 묘역을 인식했을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경관에 대한 각기 다른 경험과 느낌, 그리고 해석과 기억은 말을 통해 그리고 무엇 보다고 기억된 이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체험되고 재기억 되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유적으로 경주 서악동 고분군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0년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된 경주는 월정, 동궁, 월지, 첨성대, 그리고 대릉원과 불국사 및 석굴암 등의 유적을 포함하는

등 특징 있는 역사 경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산과 선도산, 명활산, 여근곡 등을 포함한 경주의 문화 경관은 일종의 불교와 관련된 상징적 또는 이상적 경관을 형성한다. 그런데 대략 4세기 후반 에서 5세기를 거치면서 대릉원으로 대표되는 경주의 평지에 왕릉급 무덤이 축조되는 것에 비해 6세 기를 지나 7세기대에 들어가면 소위 성골의 등장과 불교식 장법 그리고 당의 묘제들이 도입되면서 왕릉의 입지가 변하게 된다 (예들 들어 대릉원과 같은 집단묘에서 묘역을 갖춘 단독묘로의 변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되는 예가 태종무열왕릉이 있는 서악동 고분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태종무열왕릉 외에 다른 네 기의 무덤이 선도산의 능선에 위치해 있 다. 이 네기의 무덤의 주인공은 아마도 법흥왕, 진훙왕, 진지왕 그리고 문흥대왕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물론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이 네 명의 왕들은 태종무열왕의 조상으로 삼국사기와 같은 문 헌 자료에 따르면 진지왕은 폭정을 이유로 조카 진평왕에 의해 폐위되었고 진지왕의 후손들은 비록 왕족의 신분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왕위에 다시 오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선덕여왕 과 진덕여왕 이후 진평왕계가 끊어지고, 진지왕계였던 김춘주가 가야계였던 김유신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라 태종무열왕으로 즉위하였고 그의 사후 왕의 무덤은 아마도 그의 직계 선조로 추정 되는 서악동 고분군에 묻혔거나 아니면 그를 중심으로 그의 조상묘들이 이전되거나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분군의 축조는 그의 권위와 정당성을 그의 직계 조상과 그들로 대표 되는 과거로부터의 계승을 통해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태종무열왕 자신과 그의 계승자들은 (추정된) 계승 순서에 따라 그들의 무덤을 축조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과거의 위대한 왕이었던 조상들과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계승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했을 것이다. 무덤의 주인공들(생전에)과 그의 계승자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 싼 여러 사람들은 이러한 무덤의 지속적인 축조와 무덤의 입지, 그리고 경관을 경험하고 느끼고 기억하면서 과거로부터 현 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적 순서 (혹은 계승적 관계)를 내재화하고 그러한 계승 관계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조하거나 내면화 했을 것이다.

3) 3. 영국 웨섹스 문화와 스톤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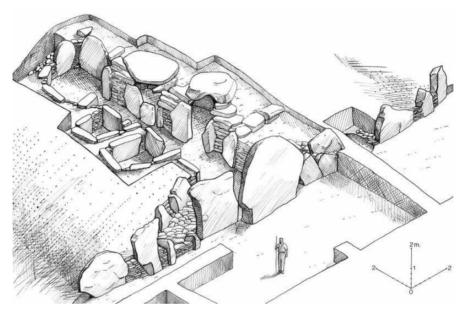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경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영국 선사시대의 각지 경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된 바 있다. 특히 신석기 시대의 거석기념물과 청동기 시대 원형 봉분묘에 대한 경관고고학적 해석이 주목되는데 여기에는 스톤헨지가 위치하고 있는 웨섹스 지역의 솔즈베리 평원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이 지역에는 스톤헨지 외에도 우드 헨지 (wood henge)와 에이브베리 (Avebury) 유적, 그리고 생츄어리 (Sanctuary) 유적과 더링턴 월(Durrington Wall)을 포함한 헨지 유적들, 웨스트케넷 (West Kennet) 유적을 포함한 10기 이상의 신석기 시대 장방형 고분들, 그리고 350여 기의 청동기 시대 원형 고분들이 발견된 바 있다.



스톤헨지와 인근 유적 (출처: Julian Richard 2011: 5)

이 가운데 웨스트 케넷을 포함한 장방형 고분들은 대체로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경까지 축조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장방형 고분들이 일상생활과 제의의 과정에서 갖는 역할에 주목하여, 거석무덤의 축조과정과 축조 후 그곳에서 행해졌을 장례의식 및 제의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공동체의식과 규범을 형성하고 재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거석무덤에서 치러지는 장례의식 과정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지위와 의무가 죽은 사람과의관계를 통해 새롭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거석무덤의 정면이나 측면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조상들의 시신과 유골에 대한 접근은 일부 개인들에게만 허용되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조정된 지위와 의무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제의의 진행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당화되고 각인될 수 있다. 또한 무덤 내 시신과 부장품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을 때 형성되는 거석무덤의 기념물적 성격은 조상에 대한 기억이 또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화되어 영속화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거석무덤은 산 자로 하여금 조상과의 관계를 매개로 한 자신의 정체성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웨스트 케넷 무덤의 축조와 지속적인 사용은 조상을 중심으로 한 특정혈연집단이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화하거나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혹은 제의에서 일어나는 시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통해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이루어지는 기제로서 무덤이 축조되고 계속적인 추가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웨스트케넷 장방형 고분의 내부구조 (출처: http://www.wessexarch.co.uk)

반면에 헨지 유적들은 기원전 3000년 전 이후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스톤헨지의 경우 비록 최근 발굴성과 (Parker Pearson 2010: Pers. comm)가 종래에 알려졌던 축조과정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종래의 일반적 인 견해에 따른다면 대략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 까지 대략 1500년의 기간 동안 맨 처음 단계에서는 원형 도랑과 둑으로 이루어진 헨지 유적으로 출발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석조 건축물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방식으로 축조되어 온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스톤헨지의 등장은 보다 광역의 지역집단들, 혹은 지역공동체들 (물론 혈연관계가 기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은 크다)이 일년 중 특정한 시점을 기해 다 같이 공동체 제의에 참여하거나 스톤헨지 의 지속적 축조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추론이 맞는다면 여기에는 제의의 주 대 상이 특정한 혈연 집단의 공동조상에서 광의의 지역공동체를 포괄할 수 있는 초자연적 대상으로 변했을 가능성도 추론할 수 있으며 조상의 유체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 받 는 것에서 그 제의와 지속적인 축조를 이끌어 가는 것으로부터 현실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의 권위와 권력의 강화가 바 로 죽음에서 개인(성)의 강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바로 기원전 2000년 이후 스톤헨지를 둘 러싸고 존재하는 웨섹스 문화의 청동기 시대 개인 원형 무덤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웨스트 케넷 지역의 가장 높은 고지에 축조된 웨스트 케넷 무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서 먼 과거를 대표하는 동시에 조상과 관련된 기억들을 신비화하며 영속화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대체해 간 스톤헨지는 스톤헨지와 관련한 제의에 참여하는 지역집단들이 우드 헨지와 생츄어리 유적을 비롯한 비슷한 형태의 유적을 축조했던 다른 지역 집단에 비해 건축물의 규모나 질의 측면에서 다른 집단을 압도하면서 지역의 주도권을 쥐는 동시에 이러한 주도권 획득에 많은 기여를 했던 개인들이 궁극적으로 개인무덤의 축조를 통해 개인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권위는 또한 이들 무덤의 선형 입지 패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체 내의 계승적 관계의 강조를 통해, 그리고 주 제의 장소인 스톤헨지와의경관상의 관계에 의해, 그리고 멀리는 먼 과거를 대표하는 웨스트 케넷과의 관계에 의해 합법화되고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톤헨지 부근 지역에서 동시대의 주거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이 주거지들은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사용된 정착 주거지라기 보다는 아마도 일년 중특정한 시기에 스톤헨지의 지속적인 축조에 참여하거나 스톤헨지에 있었던 제의에 참여하는 동안 사용되었던 일종의 임시주거지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이를 통해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스톤헨지의 축조 혹은 제의는 당시 해당 농경사회의 시간을 분절하며 규칙화했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당시 사람들의 시간(관)의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 스톤헨지의 축조 혹은 제의의 참여를 통해 스톤헨지, 그리고이와 관련한 각종 행위들의 여러 규범과 구조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었을 것이라는점이다. 이러한 규범과 구조들은 축조 또는 의례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졌을 템포 (몸의 움직임과 리듬)로써의 시간, 먼 과거로 환원되어 영속성을 가지게 된 시간 등과 깊은 관련이었다. 우드 헨지에서 보는 것처럼 제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제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밖에 이 우드 헨지와 별 관련이 없는 제 3자에게 이 우드 헨지를 포함한 경관이 제의의 공간이라는 일차적 의미와 함께 다양한 부차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다층적 의미들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그리고 그 의미들이이해되는 맥락에 따라 타협되고 조정되며 때로는 경쟁하거나 갈등을 빚기도 한다.

또한 제의가 행해지는 헨지 유적뿐만 아니라 웨스트 케넷(West Kennet) 무덤 유적을 향하는 길 (Avenue)에 거석들이 세워진 에이브버리(Avebury) 유적의 경우처럼 사람들의 움직임과 동선을 통제하면서 이 지역의 경관을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해석하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움직임과 동선, 그리고 시선의 통제는 통제를 받는 사람들의 경관에 대한 경험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했을 것이고 따라서 경관을 느끼거나 해석하는 방식도 제한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웨섹스 지역의 솔즈베리 평원의 복합유적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여러 형식의 유구들에의해 매개되고 조건 지워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일상과 죽음, 그리고 제의, 기억과 영원이 서로 교차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 (혹은 관계들에 대한 담론)들

이 형성되고 기억되며 타협되고 경쟁하는 일종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종일. 2006.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가능성」 『한국고고학보』58.

김종일, 2009. 「삶과 죽음의 토포필리아」 『선사농경연구의 새로운 동향』 안승모 이준정 편, 사회평

u. 김종일, 2010. 「경관고고학의 이해」 『제 38회 고고학연구 공개강좌』. 영남문화재연구원

Kim, Jongil, 2008. Life and death in 'Life world': the construction of symbolic landscape in the

Korean Bronze Age.. 6th World Archaeological Congress. University of Dublin. 안재호, 2012, 「묘역식 지석묘의 출현과 사화상 - 한반도 남부의 청동기 시대 생계와 묘제의 지역상」.

호서고고학 26. 윤호필, 2009.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에 관한 연구 - 기능과 의미를 중심으로-」『경남연구』1. 윤호필, 2009.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에 관한 연구 - 기능과 의미를 중심으로-」『경남연구』1. 『청동기 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shmore, W. and A. B. Knapp. (eds.). 1999a. Archaeologies of Landscape. Oxford: Blackwell

Ashmore, W. and A. B. Knapp. 1999b. Archaeological Landscapes: Constructed, Conceptualized, Ideational. In Ashmore, W. and A. B. Knapp. (eds.). Archaeologies of Landscape: 1-30. Oxford: Blackwell

Bachelard, G. 1969. The poetics of Space. Boston: Beacon.

Barrett, J. C. 1994. Fragments from antiquity. Oxford: Blackwell.

Bell, M. and J. Boardman. (eds.). 1992. Late Quaternary Environmental Change. Harlow: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Bender, B. (ed.). 1993. Landscape. Oxford: Berg.

Bender, B. 1998. Stone Henge: Making Space. Oxford: Berg.

Bender, B. and M. Winer, 2001. Contested Landscape. Oxford: Berg.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urdieu, P. 1990. The Logic of Practice. Cambridge: Polity Press.

Brück, J. and M. Goodman, 1999. Making Places in the Prehistoric World. London: UCL press.

Butzer, K. W. 1971. Environment and Archaeolog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Butzer, K. W. 1982. Archaeology as human ec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eron, R. 1978. Interpreting buried land snail assemblages from archaeological sites. In D. Brothwell. K. D. Thomas and J. Clutton-Brock, (eds.). Research Problems in Zooarchaeology: 19-24. London: UCL.

Canuto, M. A., and J. Yaeger (eds.)., 2000. The Archaeology of Communities. London: Routledge.

Cashdan, E. 1983. Territoriality among human foragers: Ecological models and an application to four Bushman groups. Current Anthropology 24: 47-66.

Chadwick, A. M. (ed.). 2004a. Stories from the Landscape (BAR International Series 1238). Oxford: Archaeopress.

Chadwick, A. M. 2004b. 'Geographies of sentience' - an Introduction to space, place and time. In Chadwick, A. M. (ed.). Stories from the Landscape (BAR International Series 1238): 1-31. Oxford: Archaeopress.

Chang, K. C. 1968. Settlement Archaeology. Palo Alto: National Press Book.

Chapman, R. 1990. Emerging Complex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ester-Kadwell, M. (ed.). 2005. Active Landscapes (Archaeological Review from Cambridge Vol. 20.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orley, R. J. and P. Haggett (eds.). 1967. Models in Geography. London: Metheun.

Clark, J. G. D. 1952. Prehistoric Europe: the Economic Basis. London: Methuen.

Clarke, D. (ed.). 1977. Spatial Archaeology. London: Academic Press.

Cohen, A., 1985.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London: Routledge.

Conkey, M. W. 1980. The identification of prehistoric hunter-gatherer aggregation sites: The case of Altamira. *Current Anthropology* 21(5): 609-30.

Cosgrove, D. and S. Daniels (eds.).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roxford, B. 2005. Real and Unreal Landscapes. In M. Chester-Kadwell (ed.). *Active Landscapes* (Archaeological Review from Cambridge Vol. 20.1): 7-1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unliffe, B. (ed.). 1994. The Oxford Illustrated Prehistory of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unliffe, B. 1997. The Ancient Celts. London: Penguin Books.

Dimbleby, G. 1985. The palynology of archaeological sites. London: Academic Press.

Duncan, J. and L. David (ed.). 1993. place/culture/representation. London: Routledge.

Edmonds, M. 1999. Ancestral Geographies of the Neolithic. London: Routledge.

Flannery, K. (ed.). 1976. The Early Mesoamerican Village. Orlando: Academic Press.

Fish, S. K. and S. A. Kowalewski, 1990. *The Archaeology of Regions*.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e Press.

Foucault, M. 1977. Discpline and punish. London: Allen Lane.

Fowler, P. and M. Sharp, 1990. Images of Pre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mble, C. S, 1986. The Palaeolithic Settlement i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errad, J. 1992. Soil Geomorphology. London: Chapman & Hall.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London: Polity Press.

Gordon, C. (ed.).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by Michel Foucault*. Brighton: The Harvester Press.

Grant, E. (ed.). 1986. *Central Places, Archaeology and History.* Sheffield: University of Sheffield.

Hagerstrand, T. (ed.). 1981. Space and Time in Geography. Lund Studies in Geography 48.

Haggett, P. 1965. Locational Analysis in Human Geography. London: Edward Arnold.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 Oxford: Blackwell.

Heidegger, M. 1978. Basic Writings. London: Routledge.

Higgs, E. S. (ed.). 1972. *Papers in Economic Pre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iggs, E. S. (ed.). 1975. Palaeo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illier, B. and J. Hanson, 1984. *The Social Logic of Sp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irsh, E. and M. O'Hanlon (ed.), 1995. The Anthropology of Landscape. Oxford: Clarendon

Press.

Hodder, I. and C. Orton, 1976. *Spatial Analysis in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dder, I. (ed.) 1978. The Spatial Organisation of Culture. London: Duckworth.

Hodder, I. 1991. Reading the Past.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dder, I. 1992. Theory and Practice in Archaeology. London: Routledge.

Husserl, 1999. Essential Husserl: Basic Writings in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Indiana.

Ingold, T. 2000.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Kenward, H. 1978. The value of insect remains as evidence of ecological conditions on archaeological sites. In D. Brothwell, K. D. Thomas and J. Clutton-Brock, (eds.). *Research Problems in Zooarchaeology:* 25-38. London: UCL.

Kim, Jong-II, 2002. *Material Categorisation and Human Subjectification*. Ph.D. thesis. Dept. of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Lacan, J. 1977. Écrits. London: Routledge.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Lévi-Strauss, C. 1968. Structural Anthropology I. London: Penguin Books.

Lillesand, T. M. and R. W. Kiefer, 1979. Remote Sensing and Image Interpretation. New York: John Willey & Sons.

Lukes, S. (ed.). 1986. Power. Oxford: Blackwell.

Matless, D. 1998. Landscape and Englishness. London: Reaktion Books.

Miller, D., and C. Tilley (eds.). 1984. *Ideology, Power and Pre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ir, R. 1999. Approaches to Landscape. Palgrave Macmillan.

Parker Pearson, M. 1993. Bronze Age Britain. London: Batsford.

Parker Pearson, M. and C. Richard, 1994. Architecture & Order. London: Routledge.

Renfrew, A. C. 1984. Approaches to Social Archae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Renfrew, A.C. and J. F. Cherry, (eds.). 1986. *Peer Polity Interaction and Socio-politic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wlands, M., M. Larsen and K. Kristiansen (eds.). 1987. *Centre and Periphery in the anci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ama, S. 1995. Landscape and Memory. New York: HarperCollins.

Schortman, E. M. and P. A. Urban (eds.). 1992. Resources, Power, and Interregional Interaction. New York: Plenum Press.

Shanks, M. 1992. Experiencing the Past. London: Routledge.

Smith, C. A. 1976. Regional Analysis I and II. New York: Academic Press.

Thomas, J. 1991. Rethinking the Neolith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Thomas, J. 1993. The Politics of Vision and the Archaeologies of Landscape. In Bender, B. (ed.). *Landscape*: 19-48. Oxford: Berg.

Thomas, J. 1996. Time, Culture & Ident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Tilley, C. 1994. A Phenomenology of Landscape. Oxford: Berg.

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Ucko, P., R. Tringham and G. W. Dimbleby (eds.). 1972. *Man, settlement and urbanism*. Duckworth.
- Wagstaff, M. (ed.). 1987. Landscape and Culture. Oxford: Basil Blackwell.
- Wobst, H. M. 1977. Stylistic behaviour and information exchange. In Cleland, C. E. (ed.). For director: Research essays in honour of James B. Griffin. Museum of Anthropology, Anthropological Papers 61: 317-42.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